내 마음이 묘법, 한 생각에 우주가 들썩

☞ 19면에서 계속

▲스님: 하하하. 집이가 그렇게 주인공을 찾는다 이러기보다도 그렇게 되면 그걸 벗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왜 활활 좀 벗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질문자2: 그런데 살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나 자신이 주인공을 찾아서 스스로를 벗어나는 길도 있지만 나는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내 주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서로 상호 연관적으로 생활이 연계될 때는 제가 어떻게 나를 찾아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건지요.

▲스님: 그건 당신만이 알지 제3자는 몰라요. 그러니깐 당신만이 벗어나도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깐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제각끔들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깐 없다 있다 이런 말 투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부터도 가지고 있으니깐, 아주 필요로 하잖아요.

생각으로 고통짓지 말아야

이런 일이 있죠. 병원에 가도 영 피가 멎질 않고 사람이 죽겠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미국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꼭 거기 가야하잖아요. 그렇죠? 의사라도 불러다가 봐야 하는데 병원엘 갔는데도 영 피가 멈추질 않는데요. 그래서 원주 도립병원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데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있었더니 편지를 좀 해 달래요. 전화를 해 주던지. 그래서 여긴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흘 됐나 피가 멎고 인제는 정신이 들어서 안다고 전화를 했어요.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깐 그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이 부처님의 뜻은 항상 화해요.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화해서 이걸로도 화하고 저걸로도 화하고 그러니깐 여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깐 생각에 따라서 자꾸 화해서 변해야 만이 그 병자한테 필요한 점을 주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만 그 사람한테 필요한가 해서 모두 찰나찰나 바뀌니까.

▲질문자2: 그런데 찰나찰나 바뀌는 그것이 저희가 태어날 때에 각자 태어나는 곳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물론 이 모습은 껍질일 수밖에 없이, 아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이 보이는 껍질을 통해서그 주인공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로 보여주는 이것이 자꾸 변하고 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내가 태어날 때 어떤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업이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좀 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스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그림 · 최주현

▲스님: 그거야 이 물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기도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항상 모습과 자기 과거 불성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둘로 항상 보잖아요. 둘로 보기보다도 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분들도 많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결국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서 보이는 모습은 그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꼭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믿지 않으면 결정지을 수도 없고 뭐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니깐 꼭 그걸 반드시 있다고 믿어야지 되는 거죠. 자기가 죽어도 껍질은 없어지고 근본만 남으니깐 또 옷을 입고 재생을 해서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 말입니다.

형상 달라도 불성은 하나

▲질문자3: 오늘 스님을 친견한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스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로는 마음공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론을 공부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평상시에 물질의 근원을 몰라서 항시 화두로 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 내지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변화의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인 바 그 변화의 질서를 보편적인 방법으로 또 나가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반복성이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공부가 바로 저희들이 하는 물질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에서는 무에서는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 현저한 사실이고 유에서 유가 유로 상호 변환하는 데의 그 질서, 변화의 질서를 바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20세기 과학이 첨단 과학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도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물질 근원의 본질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본질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말하면 물질 최초의 창조와 그 창조된 물질이 최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에서도 아직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21세기에는 꼭 풀려야 되고 풀려야 만이 우리 인류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항시 그 문제를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스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하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지금 물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물질이 뭘 어디로 갑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자리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딴 데로 가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리를 딴 데로 옮기거나 그런 점은 다 화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 자리로 갑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 자리요, 보이더라도 그 자리인데 그것이 화해서, 우리 저녁에 잠이 와서 자지요. 자는데 밤에 자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산케 하고 낮에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쓰고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만가지 물질도 하나의 근본 에너지서 생겨 다시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질문자3: 예, 예를 들면 어떤 분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분자의 구성은 원자로 돼 있을 것이고 원자의 밑에는 전자가, 핵과 전자가 돼 있고 그럼 전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이런 과학적인 논리 추구를 하면은 현대 과학적으로는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가에서는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하지 않으면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허구에 빠져 가지고, 모순성에 입각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 자신은 화두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삼라만상지관파 즉 시우주만상관이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 분광을 하면은 삼라만상수보다도 많은데 그 파장 하나 하나가 바로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그 하나하나를 창조했다. 저는 그러한 가설 하에서 여직 과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럼 빛은 누가 만들었느냐. 빛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런 인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빛의 최소의 근원은 광자라고 하는 입자인데 그럼 광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현재 해석으로는 광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덩어리이다.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추구를 하면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에도 최초 물질 최초의 근원의 시작과 또 최후의 끝을 해결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재가불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봤는데 맞은 지 안 맞은 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자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한다고 하는 지금 증명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가설로 해서, 그래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태어났다 하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아무 것도 없는데서 태어났다. 우주 본시공이다. 그럼 아무 것도 없는 데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 실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본시공 만상도허상. 이 삼라만상이

한생각에 일체 현현

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의 그림자다. 유무상 비상은 있고 없고 상이고 상이 아닌 거는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뭐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냥 과학을 합니다마는 그 이하 소위 포톤 이하의 과학은 정립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스님께서 좀 하교 있으시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스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과학이라면 과학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요. 허나 불교의 부처님 법으로서는 우리가 없다고, 몽땅 다 없다고 봐야죠. 없는 데서 그냥 즉 말하자면 하나의 생각을 집었다 이럴 때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묘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회자: 예,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2001년 5월 18일 동국대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을때 시멘트가 있었다면?





시멘트법당의 대명사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90-29
대표전화:02)494-4890-1

설계에서↔시공까지
사업안내 : 콘크리트법당, 요사채, 납골당